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

－ 햇살론 이용자를 중심으로－

2014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호 병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진택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redit Characteristics of
Microfinance User on the Credit Guarantee

2014년 6월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호 병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진택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redit Characteristics of
Microfinance User on the Credit Guarantee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호 병



김호병의 컨설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 - 햇살론 이용자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 전공

김 호 병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금융환경은 급격하게 변하였으며, 그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민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연구자는 서민금융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신용보증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증적인 방법으로 서민금융이용자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햇살론 이용자 중 신용보증사고자 32,000여건의 데이터를 기초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신용특성을 분석하여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등 3개의 변수를 도출한 후 이들 변수가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보증유형과 보증비율을 조절 변수로 하여 신용특성 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정된 가설을 종합해 보면 햇살론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는 신용보증 이용자의 주요 신용특성인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영향의 정도는 신용카드요인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연체요인, 대출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과 보증비율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보증유형은 신용특성 중 2가지 요인 즉, 신용카드요인과 연체요인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출요인의 경우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증비율은 신용특성의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신용보증사고에 있어서 신용보증 이용자의 각각의 신용특성들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보증여부 결정시 고객의 신용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반영하는 등 체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보증의 유형이 신용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신용보증 상품의 개발이나 보완에 있어서 신용보증 이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금융소외계층과 서민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은 향후 모든 금융이용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과 시중은행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함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주요어】 서민금융, 햇살론, 신용특성, 신용보증사고, Credit Guarantee, Microfinance,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II. 이론적 배경	3
2.1 서민금융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2.2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 및 신용보증사고에 관한 고찰	11
2.3 금융이용자의 신용특성 관련 선행연구	19
2.4 선행연구와 관련성 및 차별성	23
III. 연구방법	24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4
3.2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29
3.3 측정도구	34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5
IV. 연구 결과	36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4.2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결과	37
4.3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 관련된 분석결과	40
4.4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간의 분석결과	48
4.5 연구가설 검증결과 및 시사점	58

V. 결 론	61
5.1 연구의 요약	61
5.2 정책적 시사점	63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64
【참고문헌】	65
ABSTRACT	68

【 표 목 차 】

<표 2-1>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	6
<표 2-2> 주요 서민금융지원 현황	7
<표 2-3> 햇살론 신용보증 체계(최초 시행기준)	9
<표 2-4> 햇살론 등급별·기관별 보증공급 현황(2010.7~2013.12)	10
<표 2-5> 개인신용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	12
<표 2-6>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지 고려요소	12
<표 2-7> 개인신용평점의 활용사례	13
<표 2-8>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	14
<표 2-9>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분포	15
<표 2-10> 햇살론 신용등급별 신용보증 사고발생 현황	16
<표 2-11> 햇살론 금융회사별 사고발생 현황(2010.7~2013.12)	17
<표 2-12> 금융이용자의 금융거래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23
<표 3-1> 신용카드요인의 조작적 정의	30
<표 3-2> 연체요인의 조작적 정의	30
<표 3-3> 대출요인의 조작적 정의	31
<표 3-4> 보증유형의 조작적 정의	32
<표 3-5> 보증비율의 조작적 정의	33
<표 3-6> 신용보증사고의 조작적 정의	33
<표 3-7> 측정도구의 구성	34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표 4-2> 신뢰성 분석결과	38
<표 4-3> 측정문항의 타당성 분석결과	38
<표 4-4> KMO와 Bartlett의 검정	39
<표 4-5> 신용카드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41
<표 4-6> 연체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43
<표 4-7> 대출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45

<표 4-8>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46
<표 4-9>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48
<표 4-10>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모형요약	49
<표 4-11>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결과의 분산분석	49
<표 4-12>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계수	50
<표 4-13>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모형 요약	50
<표 4-14>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결과의 분산분석	51
<표 4-15>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계수	51
<표 4-16>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모형 요약	52
<표 4-17>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결과의 분산분석	52
<표 4-18>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계수	52
<표 4-19>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54
<표 4-20>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54
<표 4-21>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55
<표 4-22>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56
<표 4-23>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57
<표 4-24>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57
<표 4-25>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여부 요약	60

【 그림 목 차 】

<그림 2-1> 서민금융 대상 및 범위	4
<그림 2-2>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원 체계	5
<그림 2-3> 햇살론 신용등급별 보증사고발생(금액) 및 사고율	17
<그림 2-4> 햇살론 금융기관별 보증사고발생 및 사고율	18
<그림 3-1> 연구모형	24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 경제에 대한 최근의 발표를 보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내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삶의 질 지수의 11개 항목 중 6개에서 OECD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46.4%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5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고 답한 사람이 15.5%에 이르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환경은 근래 들어 가장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업·복지·세제·금융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친서민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 중에서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서민금융 분야이다.

외환위기 이후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금융소외계층의 생계자금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햇살론이 2010.7월 시행되는 등 정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지원규모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서민금융 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신인석(2012) 등은 서민금융지원이 과도하여 저신용등급자들의 부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인 햇살론은 따뜻한 금융이라는 슬로건 하에 신

용보증재단중앙회(사업자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 6개 서민금융권이 대출을 담당하여 2010.7월부터 5년간 10조원의 자금을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햇살론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제도 운용상의 문제들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금융과 유사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스템의 내용을 탐구하고,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햇살론 제도의 연구·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햇살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서민금융 이용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신용특성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것이다.

둘째, 신용보증사고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조사·연구할 것이다.

셋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햇살론 운영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민금융의 내용 및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논문 및 자료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 요인들을 연구모형으로 하여 해당 변수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것이며, 서민금융 이용자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간의 실증적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서민금융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1 서민금융의 정의

서민금융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서민금융의 사전적 의미는 “소득이 적은 서민에 대한 소비자금 또는 주택마련자금이나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경영자금을 융통해 주는 일로 전당포,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따위에서 주로 다룬다”라고 정의¹⁾되고 있다.

이건호 외(2010)는 서민금융을 정의하기 이전에 우선 서민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하였다. 그는 서민의 정의를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서민으로 분류하고 가구 총소득 분포상 하위 30% 혹은 40% 정도의 저소득층”으로 보았다. 그는 또 이어서 서민금융을 “10등급의 신용체계에서 7등급 이하”라고 정의하였다.

서민금융과 밀접한 관계인 금융소외자에 대해 살펴보면, Leyshon and Thrift(1995)는 금융소외에 대해서 빈곤한 계층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때 방해받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진호(2009)는 금융소외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제1집단은 현재와 미래 모두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신규채무 부담시 상환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제2집단은 현재는 경제활동 능력이 없지만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이 있을 경우 미래에 경제활동 능력이나 지불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으로, 제3집단은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 능력이 모두 있지만 기존채무에 대한 지불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공급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제4집단은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 능력이 모두 있지만 신규 또는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한 지불능력 입증에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공급이 거절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그림 2-1>은 금융당국이 보는 서민금융 대상 및 범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을 광의의 서민금융과 협의의 서민금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의의 서민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이하로써 일반금융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통칭하고 있고, 협의의 서민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이하로써 시중은행 이용이 곤란하여 상호금융 또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대상 및 자금 수요		현 제도	해당기관
광의의 서민금융	•신용 1~5등급, 은행 이용 가능	→ 일반금융	시중 은행
	•6등급이하, 은행 이용 곤란 → 생계자금·사업자금	→ 서민금융	서민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7등급이하, 2금융권도 이용 곤란 → 창업자금 등 자활자금	→ 미소금융	미소금융재단, NGO 등
	•9~10등급,전금융권 이용 곤란 → 생계자금	→ 신용회복지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경제활동 능력 없음→생계자금	→ 기초생활보장	정부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0.4)

<그림 2-1> 서민금융 대상 및 범위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해보면 서민금융은 경제활동 능력은 있으나 일반금융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권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서민금융의 현황

1)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원체계

위에서 살펴 본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분류와 현재 금융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원체계를 비교하여 분류해 보면 <그림2-2>

와 같다. 그림에 의하면 금융회사들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는 일반금융을 제외한 우대금융, 신용보증, 재활지원을 서민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원 창구	지원 방식 (상품명)	주요 지원대상 (신용대출 기준)	금리수준
일반금융	은행	신용·담보 대출	신용 5등급 이내	5~14%
	상호금융	"	신용 2~7등급	10~25%
	여신전문회사	"	신용 5~7등급	18~28%
	저축은행	"	신용 6~10등급	21~34.9%
	대부업체	"	신용 5~10등급	34.9% 이내 (법정최고금리)
우대금융	은행	새희망홀씨	6~10등급(생계자금)	7~12%
	상호금융, 저축은행	햇살론	6~10등급(생계·사업)	8~11%
	미소금융재단, NGO	미소금융	7~10등급(사업자금)	2~4.5%
	신용회복위, 신용회복기금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성실이행자 (생계자금,사업자금)	4%
신용보증	신용회복기금	대환자금	신용 6~10등급	8.5~12.5%
	지역신용보증재단	생계자금,대환자금, 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	저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8~11%
	주택금융공사	주택자금	주택구입·임차자	2.8~4.3%
	장학재단	학자금	대학생	2.9%
재활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신용회복 개인회생	다중채무자 (채무조정,만기연장)	무이자, 원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연체채권 보유 채무자	채무감면, 분할상환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분석보고서(2013), 연구자 재정리

<그림 2-2>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원체계

2)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

현재 시행중인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2008. 12월부터 시행된 바뀔드림론²⁾이었으며, 이어서 미소금융재단이 대출하는 미소금융이 2009.12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하고 서민금융회사가 대출하는 햇살론³⁾은 2010.7월부터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에서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이 2010.11월 시행되었다.

<표 2-1>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

구 분	바뀔드림론 (‘08.12)	햇살론 (‘10.7.26)	새희망홀씨대출 (‘10.11.8)	미소금융 (‘09.12.15)
주관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출기관	시중은행	지역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16개 은행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기업·미소금융재단
지원규모	연 3천억 (1조5천억원)	연 2조원 내외 (5년간 10조원)	은행 영업이익의 10%내외	연 2천억원 내외 (10년간 2조2천억원)
보증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사업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근로자)	없 음	없 음
재원조성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회사(1조원), 정부재정(6천억원), 지자체(4천억원) 출연금	은행자금	휴면예금, 기부금
대출대상	6~10등급	6~10등급 (단, 저소득자는 1~10등급)	6~10등급	7~10등급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 1~5등급 : 3천만원 이하 6~10등급 : 4천만원 이하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 1~5등급 : 3천만원 이하 6~10등급 : 4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연 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제도권 금융이용이 불가한 창업희망자 등
자금용도	고금리대환자금	생계자금, 사업자금, 고금리대환자금	생계자금, 사업자금	사업자금 위주 (창업자금, 생계자금)
한 도	전환자금 : 3천만원	사업운영 : 2천만원 창업자금 : 5천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대환자금 : 3천만원	2천만원 이내 (기존 통상 500만원~2천만원)	5백~7천만원 (세부사업별로 상이)
운영기간	-	5년	5년간 한시운영	-
금 리	8~12%	8~11% (14.1월 적용금리)	7~12%	2~4.5%
대출체계	은행창구 접수·심사, * 보증심사 : 한국자산 관리공사	은행창구 접수·심사 *사업자는 신용보증재단 에서 보증심사	은행창구 접수·심사	창업심사 (서류·현장심사, 면접 및 사후관리)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분석보고서(2013), 연구자 재정리

2) 처음에는 환승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햇살론 시행 이전인 2009.6월부터 2010.7월까지 근로자생계대출 보증제도를 시행하여 7,506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다.

3) 주요 서민금융 지원실적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가장 먼저 시작된 바퀴드림론은 2008년 말 시행한 이래 2013년 말까지 총 197,443건, 20,821억원을 지원하였고, 햇살론은 2010.7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 말까지 499,548건, 44,53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새희망홀씨대출이 593,100건, 55,184억원을 지원하여 지원규모가 가장 많았고, 미소금융은 2010년부터 60,280건, 7,530억원을 지원하였다.

기관별 연도별로 가장 많이 지원한 연도를 보면, 바퀴드림론은 2012년에 63,144명에게 6,783억원을 지원하여 가장 많이 지원하였고, 햇살론은 2013년에 219,590명에게 19,728억원, 새희망홀씨대출은 2012년에 217,186명에게 19,874억원, 미소금융은 2013년에 18,758명에게 2,02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 주요 서민금융지원 현황

(단위:억원, 건)

구 분		바퀴드림론 (’08.12)	햇살론 (’10.7.26)	새희망홀씨대출 (’10.11.8)	미소금융 (’09.12.15)
2009	건수	14,832	—	—	—
	금액	1,431	—	—	—
2010	건수	16,567	152,731(90,465)	33,640	7,770
	금액	1,684	13,859(6,904)	2,677	796
2011	건수	46,270	56,097(33,591)	156,654	16,489
	금액	4,751	4,835(2,491)	13,650	2,548
2012	건수	63,144	71,130(52,701)	217,186	17,803
	금액	6,783	6,109(4,324)	19,874	2,159
2013	건수	56,630	219,590(189,771)	185,620	18,758
	금액	6,172	19,728(16,652)	18,983	2,027
계	건수	197,443	499,548(366,528)	593,100	60,820
	금액	20,821	44,531(30,371)	55,184	7,530

주. ()내는 근로자 기준

자료: 각 서민금융기관 연도별 통계.

2.1.3 햇살론 신용보증 현황

1) 햇살론 신용보증 개요

햇살론에 대한 신용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수요는 늘어났으나 낮은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으로 신용도와 담보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햇살론 대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2010.7월 시행되었다.

2) 햇살론 신용보증 지원 체계

햇살론의 신용보증 체계는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햇살론의 보증주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근로자)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사업자)이며, 보증운용방식은 근로자는 위탁보증방식이고 사업자는 직접보증방식이다. 보증비율은 모두 85%이며, 보증료는 1%이다. 보증의 유형(종류)을 보면 근로자는 생계자금과 대환자금으로⁴⁾, 사업자는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였고, 대출한도는 근로자는 1,000만원(대환자금 포함시 3,000만원)이고 사업자는 2,000만원(창업자금은 5,000만원)이다. 보증절차는 근로자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접수, 심사⁵⁾, 대출의 전 과정을 이행하며, 사업자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접수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취급은행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6개 서민금융업권이다.

4) 2011.9월부터 시행하였다.

5) 보증심사기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은행으로 미리 통지한다.

<표 2-3> 햇살론 신용보증 체계(최초 시행기준)

구 분	근로자	사업자
보증주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용방식	위탁보증	직접보증
보증대상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영세자영업자)
보증비율	85%	85%
보증료	1%	1%
보증유형	생계자금, 대환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1,000만원 (대환자금 포함시 3,000만원)	2,000만원 (창업자금은 5,000만원)
보증절차	신청(은행) → 심사(은행) → 대출(은행)	신청(은행) → 보증심사(재단) → 대출(은행)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취급은행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3) 햇살론 지원실적⁶⁾

햇살론의 금융기관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⁷⁾ 햇살론 신용보증 지원실적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저축은행으로 총 보증공급은 179,855건으로 14,730억원을 공급하여 비중이 전체의 약 53%로 나타났다. 이어서 지역농협으로 69,069건, 4,534억원을 지원하여 보증공급 비중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신협으로 56,871건, 4,181억원으로 보증공급 비중은 전체의 약 15%, 그 다음은 새마을금고로 53,365건, 3,782억원으로 보증공급 비중은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였으며,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38억원과 13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용등급별 지원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7등급에 122,257건, 9,024억원

6) 본 연구의 대상이 햇살론 중 근로자대출이용자의 신용보증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이하 통계 자료는 햇살론 중 근로자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통계를 사용한다. 햇살론 근로자의 대출통계와 신용보증통계와의 차이는 대출시 위험부담을 은행과 보증기관이 분담(2014.5월 현재 10%:90%)으로 함에 따라 은행의 책임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양자의 차이가 발생한다

7)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중인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신용등급이다.

이 지원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금융회사별로는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6등급에, 저축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7등급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2-4> 햇살론 등급별·기관별 보증공급 현황(2010.7~2013.12)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	합계
1등급	건수	484	14	11	369	420	271	1,569
	금액	3,328	118	83	3,075	3,464	2,346	12,414
2등급	건수	1,392	39	18	1,096	1,151	1,088	4,784
	금액	9,814	327	145	8,822	9,317	9,347	37,772
3등급	건수	2,054	70	27	1,685	1,689	2,078	7,603
	금액	14,445	577	190	13,436	13,446	17,431	59,525
4등급	건수	6,011	230	52	4,390	4,306	5,348	20,337
	금액	42,210	1,819	388	34,712	33,475	46,208	158,812
5등급	건수	14,605	513	98	9,104	9,148	18,366	51,834
	금액	102,132	4,167	765	72,412	71,281	158,087	408,844
6등급	건수	20,414	1,046	319	15,642	15,718	62,674	115,813
	금액	143,938	8,847	2,377	125,313	125,421	532,109	938,005
7등급	건수	18,804	1,203	502	17,156	13,976	70,616	122,257
	금액	113,747	8,989	3,368	120,965	89,763	565,572	902,404
8등급	건수	4,631	525	269	6,285	5,448	18,780	35,938
	금액	21,579	3,224	1,395	35,488	27,031	138,858	227,575
9등급	건수	622	111	31	997	1,214	544	3,519
	금액	2,077	395	103	3,425	4,058	2,564	12,622
10등급	건수	31	23	6	137	265	70	532
	금액	102	76	20	465	882	326	1,871
계	건수	69,069	3,776	1,333	56,871	53,365	179,855	364,269
	금액	453,437	28,546	8,834	418,149	378,231	1,472,962	2,760,159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분석보고서(2013)

2.2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 및 신용보증사고에 관한 고찰

2.2.1 신용특성의 개념 정의

금융에서의 신용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상환의지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도라고 할 수 있으며⁸⁾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채무자 개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신용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이에 따른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이용자들의 신용특성을 수집·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다.

Capon(1982)은 신용평가를 위한 특성변수로 연령, 결혼여부 등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택 소유여부, 소득, 직장, 근속년수 등 경제적특성 및 은행계정 종류, 과거 신용거래금액, 신용조회건수 등 금융거래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명식(1998)은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과 신용행동특성들 간의 연구에서 신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학교교육, 동료집단, 시간사용활동, 사회화인자 등을 들고 있으며, 신용능력 평가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6개 특성변수를 분석하여 신용위험이 좋은 고객과 나쁜 고객을 구분하는 특성변수로 연령, 연평균소득, 결혼기간, 직위, 근무년수, 금융기관과의 거래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 및 활용비중은 <표2-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신용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은 현재 연체 사실 보유여부 및 과거 채무상환이력을 나타내는 상환이력정보가 40.3%이고, 대출 및 보증채무등의 채무부담정보인 현재의 부채수준이 23.0%, 최초·최근거래일등 신용거래기간이 10.9%이고, 신용거래종류 및 신용거래형태 등 신용형태정보가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신규신용거래 활동을 위한 신용조회 건수 등의 신용조회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8) 권성일, 「최신 기업신용분석」, 한국금융연수원, 2011.

<표 2-5> 개인신용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

평가 요소	평가 요소의 상세내용	활용비중
계		100.0%
상환이력정보	현재 연체 보유 여부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	40.3%
현재부채수준	채무 부담 정보 (대출 및 보증 채무 등)	23.0%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거래 기간 (최초/최근 개설로부터 기간)	10.9%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종류, 신용거래형태 (상품별 건수, 활용비중)	25.8%
신용조회정보	신규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 활동 정보 (조회건수 등)	0.0%

자료: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2014)

금융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들은 <표2-6>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통계적특성은 연령, 성별 등이 있고, 경제적특성으로는 직업, 고용형태, 근속기간, 주택소유여부, 소득 등이 있으며, 금융거래특성으로는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 신용카드 사용현황, 신용관리정보 등록건수 및 최근 연체현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고려요소

인구통계적특성	경제적특성	금융거래특성
-연령 -성별 등	-직업 -고용형태 -근속기간 -주택소유 여부 -소득 등	-총 대출 건수 및 대출금액 -신용대출 건수 및 금액 -신용카드 사용현황 -금융업권별 대출 건수 및 금액 -신용관리정보 등록건수 -최근 연체 현황 등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신용특성 중 금융거래특성을 신용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연구·분석대상으로 한다.

2.2.2 개인신용특성 활용 현황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대출승인, 신용카드발급, 한도, 금리결정 등 각종 금융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개인의 신용특성을 반영한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의 도입은 많은 사람들의 금융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⁹⁾ 개인신용평점시스템에는 크게 금융거래자의 경제·사회적 요소를 기초로 하는 신청평점시스템과 과거와 현재의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는 행동평점시스템이 있다. 개인신용평점이란 특정그룹의 연관된 특징을 활용하여 그룹을 식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모집단내의 특정 그룹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¹⁰⁾ 개인신용평점은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1~1000점까지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이고,¹¹⁾ <표 2-7>은 개인신용평점의 활용 사례이다.

<표 2-7> 개인신용평점의 활용사례

활용기관	활용기관의 예	활용 사례
금융회사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보험사, 상호금융(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대출실행, 카드개설 등의 의사 결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
비금융회사	대부업/대부중개업	대출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
	일반 기업체	대리점관리, 신용거래개설, 통신 다회선 이용 등의 의사결정시 참고지표로 활용

자료: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2014)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구성되는 개인신용등급의 등급별 인원은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4.3월 현재 신용등급이 부여된 전체인원은 42,820천

9) Avery, Brevoort and Cancer(2009)

10) Thomas(2000)

11)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2014)

명이며, 5등급이 8,127천명으로 18.9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1등급이 7,195천명, 16.80%, 2등급이 6,984천명, 16.31% 순으로 나타났으며, 9등급이 1,471천명, 3.44%이고, 10등급이 418천명, 0.98%로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

<표 2-8>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

(단위: 천명,%)

신용등급	2012.12월	비중	2013.12월	비중	2014.3월	비중
전체	41,445	100	42,411	100	42,820	100
1등급	6,045	14.58	6,844	16.14	7,195	16.80
2등급	6,121	14.77	6,901	16.27	6,984	16.31
3등급	4,382	10.57	4,056	9.56	3,925	9.17
4등급	6,133	14.80	6,624	15.62	6,728	15.71
5등급	8,027	19.37	7,872	18.56	8,127	18.98
6등급	4,869	11.75	4,560	10.75	4,373	10.21
7등급	2,260	5.45	2,127	5.02	2,078	4.85
8등급	1,766	1.85	1,552	3.66	1,517	3.54
9등급	1,390	3.35	1,453	3.43	1,471	3.44
10등급	447	1.08	417	0.98	418	0.98

자료: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2014), 연구자 재정리

<표2-9>은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분포이다. 개인신용등급의 등급별 불량률을 살펴보면 2013.3월 현재 전체신용등급의 불량률은 2.27%이고, 1등급이 0.07%로 가장 낮으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불량률이 증가하여 10등급은 41.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불량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1등급의 경우 2011.12월에 0.08%이었던 불량률이 2013.3월에도 0.07%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위등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의 경우 2011.12월에 35.47%였던 불량률이 2013.3월에는 41.25%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더욱 늘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2-9>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분포

(단위: %)

신용등급	2011.12월	2012.3월	2012.6월	2012.9월	2012.12월	2013.3월
전체	2.30	2.27	2.33	2.33	2.28	2.27
1등급	0.08	0.07	0.07	0.07	0.06	0.07
2등급	0.17	0.16	0.16	0.16	0.15	0.15
3등급	0.27	0.27	0.28	0.29	0.27	0.29
4등급	0.55	0.53	0.55	0.55	0.54	0.54
5등급	0.85	0.79	0.79	0.79	0.77	0.78
6등급	2.26	2.09	1.99	2.03	1.91	2.04
7등급	7.58	6.97	6.92	6.88	6.37	6.74
8등급	10.71	10.49	10.71	10.86	10.77	10.88
9등급	13.37	13.89	15.13	14.96	14.88	14.71
10등급	35.47	36.44	40.98	40.75	41.78	41.25

* 2010년 12월말 불량률은 대상자의 2011년 12월말 실측 불량률

자료: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2014)

2.2.3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신용보증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보증은 타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¹²⁾ 신용보증은 기존의 보증과는 무관하게 공공의 보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증을 통칭한다고 할 수.¹³⁾ 판례는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에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신용보증이라 보고 있다.¹⁴⁾ 신용보증제도란 외형상 신용력이 미약한 개인이나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들에게 내재된 잠재적 신용력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독자적 금융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1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3) 김창중, 「신용보증에 관하여」, 사법논집 제21집, 1990, 31면, 정정일 「전자신용보
증에 의한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법적 고찰」, 2008 재인용

14) 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1772;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779 판결

1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0년사」 p.61~64, 2006

이 논문에서 신용보증이라 함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의 채무를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신용보증사고란 신용보증이용자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정결제일에 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신용보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 상태를 말한다.

2.2.4 햇살론 신용보증사고 현황

<표 2-10>은 햇살론의 신용등급별 신용보증사고 발생현황이다. 햇살론의 신용등급별 신용보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 공급이 가장 많은 7등급에서 신용보증사고가 18,703건으로 가장 많고, 6등급과 8등급이 각각 약 13,364건, 7,923건이 발생하여 신용등급 6등급~8등급 구간에서 신용보증 사고발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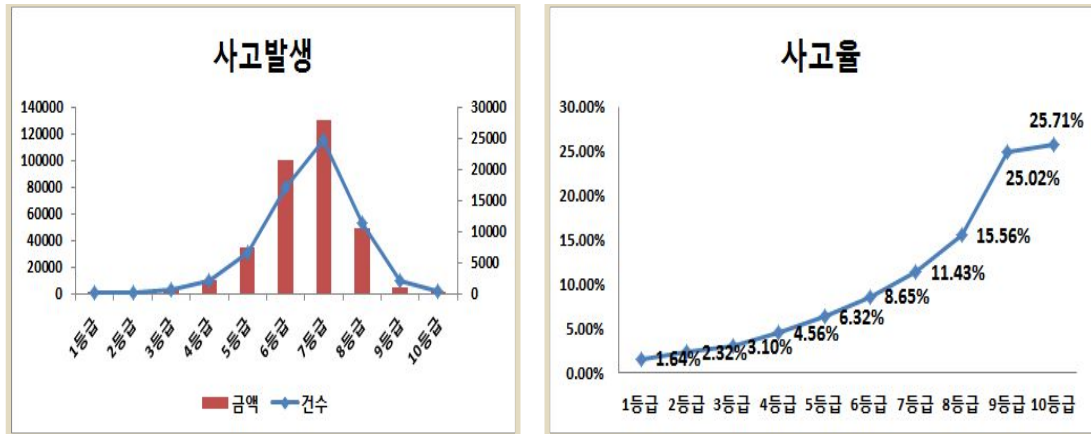
한편, 신용보증사고율은 신용등급이 높은 1등급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10등급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 1등급은 사고율이 1.64%이고 7등급의 사고율은 11.43%이지만, 8등급은 15.56%, 9등급은 25.02%, 10등급의 사고율은 25.71%로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앞에서 본 신용등급의 불량률의 추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2-10> 햇살론 신용등급별 신용보증 사고발생 현황(2010.7~2013.12)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보증공급		보증사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고율
1등급	1,569	12,414	41	203	1.64%
2등급	4,784	37,772	156	875	2.32%
3등급	7,603	59,525	357	1,848	3.10%
4등급	20,337	158,812	1,348	7,243	4.56%
5등급	51,834	408,844	4,775	25,847	6.32%
6등급	115,813	938,005	13,364	81,095	8.65%
7등급	122,257	902,404	18,703	103,145	11.43%
8등급	35,938	227,575	7,923	35,414	15.56%
9등급	3,519	12,622	1,281	3,158	25.02%
10등급	532	1,871	190	481	25.71%

주: 사고율 = 보증사고금액 / 보증공급금액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분석보고서(2013), 연구자 재정리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분석보고서(2013)

<그림 2-3 햇살론 신용등급별 보증사고발생(금액) 및 사고율>

<표 2-11>는 햇살론 금융회사별 사고발생 현황이다. 이 표에 의하면 사고 발생 규모는 저축은행이 18,12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농협이 11,970건, 새마을금고가 8,913건, 신협이 8,29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고율은 산림조합이 15.47%로 가장 높고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가 11% 내외, 타 금융회사는 대체로 8~9%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8.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의 사고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2011.9월 대환자금에 대한 대출이 시작된 이후, 저축은행에서 단기간에 동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보증공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¹⁶⁾

<표 2-11> 햇살론 금융회사별 사고발생 현황(2010.7~20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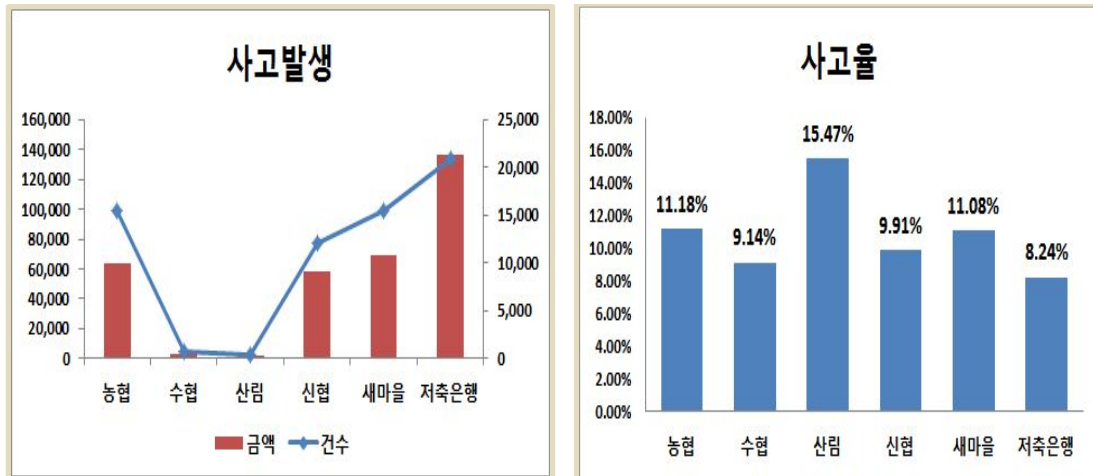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보증공급		보증사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고율
농협	69,069	453,437	11,970	50,693	11.18%
수협	3,776	28,546	534	2,609	9.14%
산림	1,333	8,834	305	1,367	15.47%
신협	56,781	418,149	8,290	41,426	9.91%
새마을	53,365	378,231	8,913	41,905	11.08%
저축은행	179,855	1,472,962	18,126	121,309	8.24%

주: 사고율 = 보증사고금액 / 보증공급금액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분석보고서(2013), 연구자 재정리

16) 저축은행에 대한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금액은 4,654억원으로 대환대출에 대한 총 보증지원 금액(5,252억원)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핫살론분석보고서(2013)

<그림 2-4> 핫살론 금융기관별 보증사고발생 및 사고율

2.3 금융이용자의 신용특성 관련 선행연구

이장희(2005)a는 청주지역 N은행 5개 지점 이용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률과 연체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고와 대출금 연체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신용카드 사용률이 20%~29%인 사람들의 연체율이 3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장희(2005)b는 대출신청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시 중요도 분석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는 대출실행기준 선호도와 대출금리 민감도 순으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연체 또는 미연체대출거래자 260명 대출실행기준에 대한 만족도와 대출금연체에 대한 연구에서 대출금 연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만족도는 모두 무보증, 연대보증, 담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민정록(2007)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연체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신용카드 계좌연령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이용자의 직업이 안정적인수록 연체확률이 낮고, 금융서비스 사용금액이 클수록,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작을수록 연체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노지현(2011)은 신용카드의 소비유형이 연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일시불거래 여부는 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할부거래가 많아질수록 연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1건 거래시마다 연체확률이 유흥비를 할부로 결재를 한 경우는 6.7%, 여행을 할부로 한 경우에는 1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서비스 또한 1건 거래시마다 연체확률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민(2012)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각 가구의 가계부채결정에 대한 영향은 각 가구의 재무상태가 개별 가구의 개별적 특성 즉,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분석되었다.

김좌겸(2012)이 신용평점모형의 예측력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13,314건의 연체채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예측력과 안정성을 향상시

키는 변수로 미해제 할부연체 총 연체금액, 선수율, 대출 총건수, 6개월 대출 잔액의 연속적 감소 최대 개월, 보증여부, 할부해제 연체 총 건수, 183일 이내 발생한 연체 중 최장 연체건의 연체일수, 최근 12개월간 최대 연속회차 중 증가 개월 수, 매해제 연체 중 최장연체건 연체일수등 총 9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조만(2013)은 2012년 한국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계부채 추이에 대한 연구에서 예금은 행권으로부터 대출기회가 줄어들수록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잠재적 부실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DTI>60인 경우 자영업자의 잠재부실차입자 가구 수 및 부채총액은 5.5만 가구, 21.2조원이나 임금근로자의 잠재부실차입자 가구 수 및 부채총액은 4만 가구, 5.8조원에 그쳤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 1~3분위 고소득임금근로자의 잠재부실차입자 가구 수는 7.8만 가구, 12.8조원인 반면에 소득 4~5분위 저소득 임금근로자는 2.8가구, 15.8조원으로 소득 4~5분위 저소득임금근로자의 잠재적 부실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의 잠재부실차입자 가구 수는 4.7만 가구, 16.8조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5.8만 가구, 11.7조원으로 수도권의 잠재적 부실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송연호(2013)는 코리아크레딧뷰로우((KCB) 데이터를 기초로 다중채무자 비중을 이용한 연체율 분석을 통해 현재의 연체율은 1개월 전 연체율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정도는 $\beta=.65$ 로 65%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채무는 $\beta=.058$ 로 6%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채무자 비중과 연체율과 시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체율은 다중채무의 증가와 10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체율이 신규대출 취급에 미치는 영향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규대출 취급 후 6개월 시점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변동과 대출잔액 증가율과 연체금액 증가율에 관한 분석에서 경

기 확장기에는 대출잔액 증가율이 연체금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수축기에는 대출잔액 증가율이 연체금액 증가율을 하회한다는 연구가설을 입증하였다. 예를들면, 확장기인 2009.9월부터 2011.1월까지의 대출잔액 증가율이 연체금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그 차이가 40%까지 증가한 반면, 수축기인 2009.8월 이전과 2011.2월 이후에는 반대로 대출잔액 증가율이 연체금액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2/4분기에는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과다채무와 연체율의 관계에서 채무규모가 같은 경우 경기수축기에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다중채무가 아닌 채무자의 연체율보다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황혜선(2013)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대출서비스 이용유형과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이용자의 93.8%가 현금서비스를 결제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현금서비스 이용자일수록 현금서비스를 결제대금에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자의 53.5%가 결제대금을 현금서비스로 충당하거나, 여러카드로 분할대출을 받거나, 카드대금의 연체를 경험하거나 하는 등의 악성 카드부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Castronova and Hagstrom(2004)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인 상황과 신용카드 한도의 수요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한도의 수요가 늘어나고, 소득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한도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Roberts and Jones(2001)의 부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부채를 혐오하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현재는 부채를 용인하는 태도로 바뀌어 신용카드 부채와 관련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Dunn and Kim(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은행들은 신용이 낮은 신용카드 고객들에게는 다수의 카드를 발급하고 낮은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연체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와 차입제약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Cox and Japelli(1993)는 소득, 자산, 연령, 거주지역, 구성원 수 등이 차입제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

하였고, Duca and Rosenthal(1993)은 결혼유무, 가구원 수, 불량신용기록, 복지혜택여부 등이 차입제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2.4 선행연구와 관련성 및 차별성

앞에서 금융이용자의 신용특성은 크게 인구통계적 특성, 경제적 특성, 금융거래적 특성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거래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신용카드 차원의 요인 연구와, 연체영역 차원의 요인 연구, 그리고 대출영역 차원의 요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12> 금융이용자의 금융거래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구 분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이장희a(2005)	0	0	—
이장희b(2005)	0	—	—
민경록(2007)	0	0	—
노지현(2011)	0	0	—
김지민(2011)	—	—	0
김좌겸(2012)	—	0	—
조 만(2013)	—	0	0
송연호(2013)	—	0	0
황혜선(2013)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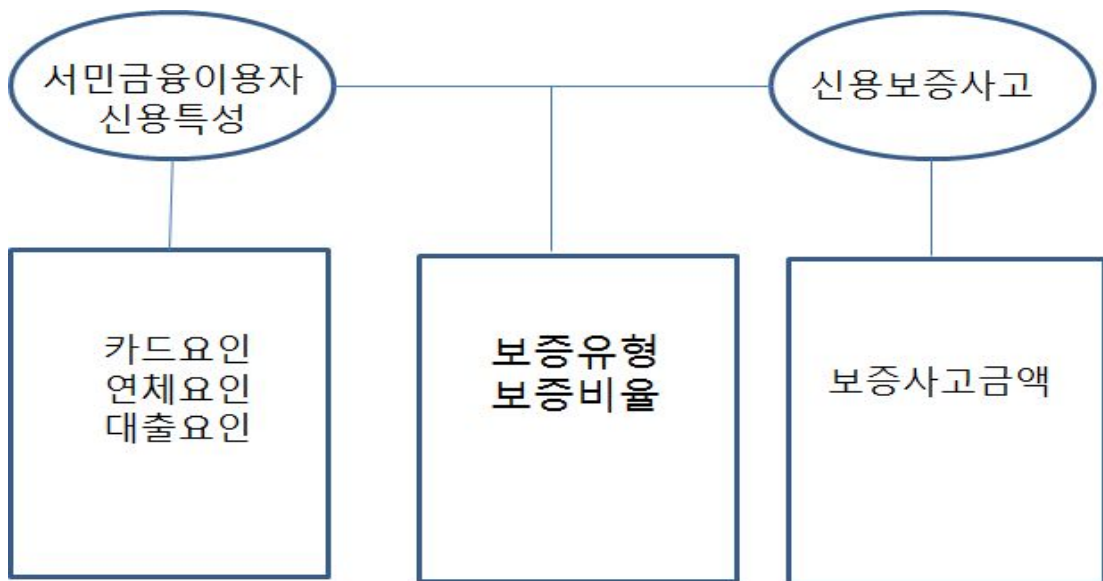
이상의 금융이용자의 금융거래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금융이용자의 개별 금융거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거나 단순히 개별 특성과 부실과 관계를 고찰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자가 고찰하고자 하는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신용특성이 신용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서민금융이용자의 각각의 신용특성들이 신용보증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점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기존의 서민금융 관련 연구와는 달리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신용특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연관성을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서민금융의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3-1>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최근 서민금융 지원이 확대되면서 그로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보증재원의 부족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보증재원의 관리측면에서 신용보증사고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용자의 금융거래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결과가 대체적으로 신용카드 차원의 요인 연구와, 연체영역 차원의 요인 연구, 그리고 대출영역 차원의 요인 연구로 나누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이용자의 신용특성을 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으로 구분하였다.

3.1.2 연구가설

1)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관계

신용카드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는 경제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2003년 카드사태에서 보듯이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로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이용률이 매우 높아 항상 부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장희(2005)a가 청주지역 N은행 이용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률과 연체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률과 대출금 연체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장희(2005)b는 대출신청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지 중요도 분석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민경록(2007)은 신용카드 계좌연령이 높고 신용카드 이용자의 직업이 안정적인수록 연체확률이 낮고, 금융서비스 사용금액이 크고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작을수록 연체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노지현(2011)은 신용카드의 할부거래가 많아질수록 연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황혜선(2013)은 고액현금서비스 이용자일수록 현금서비스를 결제대금에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자의 53.5%가 악성 카드부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헌들의 근거를 종합하여 볼 때 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특성에서 카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가설 H1]을 제시한다.

[가설 H1]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2)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관계

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하면 현재 연체사실 보유여부 및 과거 채무상환이력은 개인신용평가지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김좌겸(2012)은 신용평점모형의 예측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변수로 미해제 할부연체 총 연체금액, 183일 이내 발생한 연체 중 최장 연체건의 연체일수, 매해제 연체 중 최장연체건 연체일수 등 총 9개 변수를 선정하였고, 송연호(2013)는 현재의 연체율은 1개월 전 연체율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연체율은 다중채무의 증가와 10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체율이 신규대출 취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규대출 취급 후 6개월 시점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헌들의 근거를 종합하여 볼 때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가설 H2]를 제시한다.

[가설 H2]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3)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관계

채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형태와 조건은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결정되며, 그로 인해 개별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신용보증사고에 있어서도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하면 개인신용평가지 대출 및 보증채무 등의 부담정보인 현재의 부채수준과 최초·최근거래일등 신용거래 기간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김지민(2012)은 가계 부채결정에 대한 영향은 각 가구의 채무상태가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더 준다고 확인하였고, 조만(2013)은 예금은행권

으로부터 대출기회가 줄어들수록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송연호(2013)는 경기 확장기에는 대출잔액 증가율이 연체금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수축기에는 대출잔액 증가율이 연체금액 증가율을 하회한다는 연구가설을 입증하였고, 채무규모가 같은 경우 경기수축기에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다중채무가 아닌 채무자의 연체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헌들의 근거를 종합하여 볼 때 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가설 H3]을 제시한다.

[가설 H3]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4) 보증유형의 조절관계

보증유형(종류)은 지원요건, 지원규모, 재정여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보증상품의 기본 형태이다. 이러한 보증유형은 정책목적이나 제반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형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실위험의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보증유형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H4-1, H4-2, H4-3]을 제시한다.

[가설 H4-1]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4-2]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4-3]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5) 보증비율의 조절관계

보증비율은 대출에 수반되는 부실위험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로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보증기관의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위험부담이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는 보증비율을 높이기를 원하고 보증기관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비율이 낮으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회피하거나, 대출이용자들에게 금리인상 등을 통해 부실위험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증비율은 정책내지 목적이나 제반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85%내지 100%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보증비율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H5-1, H5-2, H5-3]를 제시한다.

[가설 H5-1]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5-2]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5-3]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3.2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이다. 이는 측정을 위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적 세계의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조작적 정의는 연구대상이 되는 어떤 변수를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세한 정의를 말하며,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변수들을 측정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한다.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이며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만으로 변수들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연구대상이 되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그림 3-1>에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연구 단위들은 모두 6개로서 독립변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사용되었고, 종속변수로는 신용보증사고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조절변수로는 보증유형과 보증비율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 따른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2.1 신용카드요인의 조작적 정의

신용카드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금융거래 수단으로 2014.3월 현재 카드사용 인구는 26,263천명에 달한다. 2013년말 신용카드 거래액은 48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금액 합계액이 1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표3-1>은 신용카드요인의 조작적 정의이다. 신용카드요인은 신용카드 수, 신용카드 발급기간, 신용카드권 대출건수의 3개 측정항목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신용카드요인의 조작적 정의

항 목	정 의
신용카드 수	발급받은 모든 신용카드 중에서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보유중인 모든 신용카드의 수
신용카드 발급기간	현재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보유중인 신용카드 중 가장 오래된 카드의 개설시점부터의 기간
신용카드권 대출건수	신용카드사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대출건수의 합계

3.2.2 연체요인의 조작적 정의

연체라 함은 대출이용자가 대출을 받고 지정결제일에 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대출의 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금융거래자가 2014.4월 현재 397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표3-2>는 연체요인의 조작적 정의이다. 연체요인은 최근 3개월내 연체건수, 최근 6개월내 연체건수의 2개 측정항목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연체요인의 조작적 정의

항 목	정 의
3개월내 연체건수	최근 3개월내에 5일이상 기간동안 10만원 이상을 연체한 건수의 합계(각 건별 최초 연체발생일 기준)
6개월내 연체건수	최근 6개월내에 5일이상 기간동안 10만원 이상을 연체한 건 수의 합계(각 건별 최초 연체발생일 기준)

3.2.3 대출요인의 조작적 정의

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약정기한인 만기에 원리금의 상환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차입자에게 일정조건하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¹⁷⁾ 그동안 가계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3월말 현재 총 가계대출 규모는 1,024조원으로 대출거래고객 수는 17,045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비은행권대출과 한계계층에 대한 부채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3-3>는 대출요인의 조작적 정의이다. 대출요인은 은행권 대출건수, 최초 대출기간, 담보제외 대출건수등 3개의 측정 항목을 하위변수로 두고 있다.

<표 3-3> 대출요인의 조작적 정의

항 목	정 의
은행권 대출건수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대출건수의 합계
최초 대출기간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대출 중 가장 오래된 대출건의 최초 대출 거래일
담보제외 대출금액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의 합계액

3.2.4 보증유형의 조작적 정의

보증유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보증상품의 기본 형태이다. 보증상품의 형태는 보증상품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증상품의 형태에 따라 보증 이용자의 범위가 다르게 형성되어 보증상품 이용자의 전반적인 신용특성의 구성이 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신용특성의 변화는 신용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7)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2009, p.64

햇살론의 보증유형은 당초 생계자금에 대한 보증의 형태만 있었으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9월부터 대환자금에 대한 보증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표3-4>는 보증유형의 조작적 정의이다. 보증유형은 생계자금과 대환자금의 2개의 측정항목을 하위변수로 두고 있다.

<표 3-4> 보증유형의 조작적 정의

항 목	정 의
생계자금	햇살론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가계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충당
대환자금	햇살론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충당

3.2.5 보증비율의 조작적 정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있어서 보증비율은 특별히 정하여진 범위는 없으나 우리나라 보증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85%내지 100% 사이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다.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85%에서 95%까지 시기별·보증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왔으나, 2014.1월부터는 보증유형(생계자금과 대환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90%를 적용하고 있다.

<표3-5>는 보증비율의 조작적 정의이다. 보증비율은 85%와 95%의 2개의 측정항목을 하위변수로 두고 있다.

<표 3-5> 보증비율의 조작적 정의

항 목	정 의
85%	햇살론 대출에 수반되는 부실위험 중 보증기관의 부실위험 부담비율이 85%인 경우
95%	햇살론 대출에 수반되는 부실위험 중 보증기관의 부실위험 부담비율이 90%인 경우

3.2.6 신용보증사고의 조작적 정의

신용보증사고란 신용보증이용자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정 결제일에 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신용보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 상태를 말한다.

신용보증사고는 신용보증지원실적과 더불어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신용보증지원실적은 수혜자를 기준으로 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신용보증제도 이용자가 얻는 유·무형의 이익과 만족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신용보증사고는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내부적인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위변제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표3-6>는 신용보증사고의 조작적 정의이다. 신용보증사고는 보증사고금액의 단일 측정항목을 하위변수로 두고 있다.

<표 3-6> 신용보증사고의 조작적 정의

항 목	정 의
보증사고금액	햇살론이용자가 원리금을 연체하여 대출은행이 대출사고 처리 후 보증기관으로 통보한 잔여 대출금의 신용보증 잔액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측정된 구성 개념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측정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변수를 측정할 문항을 추출하였다. 측정도구의 변수 구성은 크게 6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 요인은 서민금융이용자의 신용관련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과 대출요인 등 3개의 하위변수로 구성하였다. 둘째, 보증유형과 보증비율은 보증상품 구성에 대한 변수로서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절변수로서 검토하였다. 셋째,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 요인 중에서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신용특성 요인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7> 측정도구의 구성

변 수	측정내용	측정항목
신용카드요인	카드수 카드권대출건수 카드발급기간	3개 하위변수
연체요인	6개월연체 3개월연체	2개 하위변수
대출요인	최초대출기간 은행권대출건수 담보제외대출금액	3개 하위변수
신용보증사고	보증사고금액	1개 하위변수
보증유형	생계자금 대환자금	2개 하위변수
보증비율	85% 95%	2개 하위변수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특성에 따른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서민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용자로 정하였다.

본 조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햇살론(근로자대출)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 사고자로 분류된 대출자 중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말까지의 사고자를 1차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그중에서 데이터 값 미입력 등으로 인해 통계분석이 곤란한 표본과 특이값을 나타낸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186명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은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검증하여 유의확률을 찾아내는 통계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셋째, 각 변수별로 분석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여 문항이 묶이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넷째,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설계된 연구 모형과 본 연구 데이터의 독립변수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과 종속변수인 신용보증사고, 그리고 조절변수인 보증유형과 보증비율 등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관련 분석대상자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분류	N(명)	비율(%)
성별	남자	22,034	68.5
	여자	10,152	31.5
연령	20대	5,814	18.1
	30대	14,247	44.3
	40대	8,090	25.1
	50대	3,457	10.7
	60대	550	1.7
	70대 이상	28	.1
주거지소유	자가	3,947	12.3
	임차	28,239	87.7
거주지역	서울권	7,163	22.3
	중부권	12,963	40.3
	충청권	2,631	8.2
	호남권	3,330	10.3
	영남권	6,099	18.9
직업	전문가	3,348	10.4
	서비스	6,878	21.4
	판매직	3,155	9.8
	제조건설	9,770	30.4
	기타	9,034	28.1
직위	고급관리	2,031	6.3
	초급관리	6,828	21.2
	직원	17,549	54.5
	기타	5,637	17.5
고용구분	정규직	26,740	83.1
	비정규직	5,446	16.9
보증유형	생계자금	23,620	73.4
	대환자금	8,566	26.6
보증비율	85%	5,931	18.4
	90%	61	.2
	95%	26,194	81.4
합계			100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32,186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녀비율은 남성이 22,034명(68.59%), 여성이 10,152명(31.5%)이었다. 연령은 20대 5,814명(18.1%), 30대 14,247명(44.3%), 40대 8,090명(25.1%), 50대 3,457명(10.7%), 60대 550명(1.7%), 70대 이상이 28명(.1%)이었으며, 주거소유는 자가 3,947명(12.3%), 임차가 28,239명(87.7%)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권이 7,163명(22.3%), 중부권이 12,963명(40.3%), 충청권이 2,631명(8.2%), 호남권이 3,330명(10.3%), 영남권이 6,099명(18.9%)이었다. 직업은 전문가 직군이 3,348명(10.4%), 서비스 직군이 6,878명(21.4%), 판매직군이 3,155명(9.8%), 제조건설직군이 9,770명(30.4%), 기타 9,034명(28.1%)이었다. 직급은 고위관리자가 2,031명(6.3%), 초급관리자가 6,828명(21.3%), 사원이 17,549명(54.5%), 기타가 5,637명(17.5%)이었으며, 고용구분은 정규직이 26,740명(83.1%), 비정규직이 5,446명(16.9%)으로 나타났다.

4.2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결과

4.2.1 신뢰성 분석결과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한다(김계수 2010).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신뢰도에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최초 데이터입력자의 판단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이들 개념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으로 Cronbach's α 값이 0.7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Nunnally 1978).

<표 4-2>는 본 논문의 측정문항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모두 0.8 이상을 확보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는 문제가 없었다.

<표 4-2> 신뢰성 분석결과

측정개념	측정문항	Cronbach's α
신용카드요인	3	0.921
연체요인	2	0.837
대출요인	3	0.940

4.2.2 타당성 분석결과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요인부하량은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며, 0.50 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송지준 2011).

<표 4-3>은 본 논문의 측정문항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부하량 0.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변수에 따른 요인이 잘 추출되지 않아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둔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4-3> 측정문항의 타당성 분석결과

구 분	성 분		
	1	2	3
신용카드수	.830		
신용카드권 대출건수	.751		
신용카드 발급기간	.746		
6개월 연체		.929	
3개월 연체		.925	
최초 대출기간			.858
은행권 대출건수			.674
담보제외 대출금액			.638

또한, <표 4-4>와 같이 KMO와 Bartlett 검정해석을 한 결과, KMO 측도는 0.633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63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65549.403
	자유도	28
	유의 확률	0.000

4.3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 관련된 분석결과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연구대상 변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의 F검증을 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변수로는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신용보증사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4.3.1 신용카드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4-5>과 같다.

<표 4-5>는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용카드요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신용카드요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거지 소유, 거주지역, 직업, 직위, 고용구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용카드 특성 요인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대부분의 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용카드 대출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30대이며, 20대가 가장 낮게 나왔다. 이는 60대 연령대에서 소득이 줄어들어 신용카드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소유에서는 자가 소유가 임차 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자가 소유가 신용카드 활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 지역에서는 서울권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중부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지역 순으로 대부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에서는 전문가와 서비스직업군에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기타전문가로 분류된 직업 보유자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직위에서는 고급관리자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초급관리자

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관리자의 연령대가 생계자금 등 자금의 수요가 많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초급관리자 계층의 경우 신용카드 활용률이 높아 소득에 비해 부족한 자금을 신용카드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구분에서는 정규직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 등 카드 활용에 있어서 고용이 안정적인 계층이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신용카드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2,034	1,515.7	1,699.26	17.549	.000*
	여자	10,152	1,878.26	1,798.56		
연령	20대	5,814	801.32	714.195	427.316	.000*
	30대	14,247	2,054.2	1,417.953		
	40대	8,090	2,033.59	2,155.105		
	50대	3,457	1,873.20	2,349.764		
	60대	550	2,399.64	2,288.253		
	70대 이상	28	1,630.06	2,539.586		
주거지 소유	자가	3,947	2,225.19	2,101.382	23.193	.000*
	임차	28,239	1,546.88	1,546.88		
거주지역	서울권	7,163	1,742.73	1,771.05	53.384	.000*
	중부권	12,963	1,728.93	1,812.77		
	충청권	2,631	1,468.86	1,624.91		
	호남권	3,330	1,343.83	1,591.69		
	영남권	6,099	1,513.41	1,634.45		
직업	전문가	3,348	1,980.29	1,844.09	40.231	.000*
	서비스	6,878	1,612.94	1,750.97		
	판매직	3,155	1,582.42	17,280.40		
	제조건설	9,770	1,549.70	1,738.31		
	기타	9,034	1,616.94	1,679.42		
직위	고급관리	2,031	2,337.16	2,289.92	163.259	.000*
	초급관리	6,828	1,750.87	1,655.47		
	사원	17,549	1,491.08	1,651.94		
	기타	5,637	1,661.44	1,799.32		
고용구분	정규직	26,740	1,671.81	1,746.21	13.287	.000*
	비정규직	5,446	1,425.07	1,690.50		

*p<.05, **p<.01, ***p<.001

4.3.2 연체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다음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연체요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체요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거지 소유, 거주 지역, 직업, 직위, 고용구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체요인 수준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력이 취약한 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서는 70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40대와 50대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금융에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연령대에서 가정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소유에서는 연체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다. 이는 자가 소유나 임차소유 모두 연체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업에서는 전문가직군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전문가직군이 대부분 직업분류에서 기타전문가에 속하는 전문가직군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이용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직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급관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초급관리자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관리자의 연령대인 50대 전후계층이 대출금 규모가 크고 생활 자금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고용구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소득이 있으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6> 연체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2,034	.56	1.488	4.151	.042*
	여자	10,152	.58	1.554		
연령	20대	5,814	801.32	714.195	427.316	.000*
	30대	14,247	1,618.59	1,417.9513		
	40대	8,090	2,054.20	2,155.105		
	50대	3,457	2,033.59	2,349.764		
	60대	550	1,873.20	2,288.253		
	70대 이상	28	2,399.64	2,539.586		
주거지 소유	자가	3,947	.80	1.871	253.110	.000*
	임차	28,239	.54	1.449		
거주지역	서울권	7,163	1,742.73	1,771.05	53.384	.000*
	중부권	12,963	1,728.93	1,812.77		
	충청권	2,631	1,468.86	1,624.91		
	호남권	3,330	1,343.83	1,591.69		
	영남권	6,099	1,513.41	1,634.45		
직업	전문가	3,348	1,980.29	1,844.09	40.231	.000*
	서비스	6,878	1,612.94	1,750.97		
	판매직	3,155	1,582.42	1,728.40		
	제조건설	9,770	1,549.70	1,738.31		
	기타	9,034	1,616.94	1,679.41		
직위	고급관리	2,031	2,337.16	2,289.92	163.259	.000*
	초급관리	6,828	1,750.87	1,655.47		
	사원	17,549	1,491.08	1,651.94		
	기타	5,637	1,661.44	1,799.32		
고용구분	정규직	26,740	.58	1.525	11.781	.001*
	비정규직	3,267	.52	1.48		

*p<.05, **p<.01, ***p<.001

4.3.3 대출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다음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7>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출요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출요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거지 소유, 거주 지역, 직업, 직위, 고용구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출요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수요 부문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서는 70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50대로 나타났다. 주거지 소유에서는 자가 소유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 소유가 자가 소유인 경우 서민금융 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 지역에서는 서울권과 중부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서민금융대출자금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에서는 전문직직군과 서비스직군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서민금융 이용자 특성상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서민금융 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위에서는 고급관리자에서 높게 나왔다. 이는 사회에서 고급관리자가 가정경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서민금융 대출자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구분에서는 정규직과 임시직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의 안정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7> 대출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2,034	726.11	885.09	47.278	.000*
	여자	10,152	831.64	951.91		
연령	20대	5,814	587.59	663.21	126.321	.000*
	30대	14,247	701.35	779.04		
	40대	8,090	887.15	105.05		
	50대	3,457	966.46	1,207.32		
	60대	550	883.16	1,157.07		
	70대 이상	28	1,057.89	1,299.62		
주거지 소유	자가	3,947	968.69	1072.591	233.591	.000*
	임차	28,239	730.14	878.627		
거주지역	서울권	7,163	783.55	909.55	6.758	.000*
	중부권	12,963	774.21	897.63		
	충청권	2,631	694.64	878.96		
	호남권	3,330	744.91	964.83		
	영남권	6,099	735.38	906.76		
직업	전문가	3,348	864.61	945.17	15.865	.000*
	서비스	6,878	759.89	947.02		
	판매직	3,155	692.89	837.45		
	제조건설	9,770	749.70	923.78		
	기타	9,034	753.75	866.19		
직위	고급관리	2,031	938.16	1,056.14	39.760	.000*
	초급관리	6,828	793.46	877.60		
	사원	17,549	722.21	893.23		
	기타	5,637	773.41	928.00		
고용구분	정규직	26,740	765.97	900.40	16.520	.000*
	비정규직	3,267	764.55	959.92		

*p<.05, **p<.01, ***p<.001

4.3.4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다음은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2,034	69,722,017.078	2,427,123.511	6.433	.011*
	여자	10,152	6,907,566.631	2,232,500.653		
연령	20대	5,814	587.59	663.21	126.321	.000*
	30대	14,247	701.35	779.04		
	40대	8,090	887.15	1,055.05		
	50대	3,457	996.46	1,207.32		
	60대	550	883.16	1,157.07		
	70대 이상	28	1,057.89	1,299.62		
주거 지 소유	자가	3,947	6,779,846.790	2,334,949.577	14.855	.000*
	임차	28,239	6,975,706.840	2,371,198.558		
거주 지역	서울권	7,163	6,998,487.491	2,292,069.092	17.447	.000*
	중부권	12,963	7,008,643.705	2,387,924.071		
	충청권	2,631	6,898,908.925	2,390,852.318		
	호남권	3,330	6,639,964.492	2,300,089.377		
	영남권	6,099	6,968,638.717	2,424,434.946		
직업	전문가	3,348	6,984,399.415	2,247,516.258	13.984	.000*
	서비스	6,878	6,858,931.826	2,306,168.118		
	판매직	3,155	7,097,139.439	2,428,599.789		
	제조건설	9,770	7,050,355.815	2,425,622.902		
	기타	9,034	6,852,751.141	2,365,386.106		
직위	고급관리	2,031	7,310,926.882	2,475,128.213	53.336	.000*
	초급관리	6,828	7,154,949.426	2,392,706.595		
	사원	17,549	6,812,107.463	2,344,927.877		
	기타	5,637	6,989,037.695	2,341,849.504		
고용 구분	정규직	26,740	7,023,499.539	2,367,164.861	1.995	.158*
	비정규직	3,267	6,602,456.388	2,283,186.321		

*p<.05, **p<.01, ***p<.001

<표 4-8>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고용구분을 제외하고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용보증사고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신용보증사고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서는 70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소유에서는 임차인이 자가 소유 보다 신용보증사고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임차인이 자가 소유자에 비해 신용보증사고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 지역에서는 중부권과 서울권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다음은 영남권과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정보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수도권 거주 저신용 계층이 타 지역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직업에서는 판매직군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직위에서는 고급관리자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사회에서 고급관리자가 가정경제에 가장 책임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른 직위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용구분은 신용보증사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간의 분석결과

4.4.1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상관관계란 변수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상관관계라고 한다(송지준, 2011).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 1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즉 변화의 강도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변화의 방향은 +은 정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요인별로 변수계산을 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9> 상관관계분석 결과의 상관계수에서 모두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과 대출요인에서 0.27 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요인은 다른 변수들과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체요인은 모두 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연체요인 낮을수록 신용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표 4-9>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구 분	(1)	(2)	(3)	(4)
(1)신용카드요인				
(2)연체요인	.071**			
(3)대출요인	.277**	.073**		
(4)신용보증사고	.152**	-.033**	.067**	
평균(표준편차)	3.43(0.76)	3.29(0.83)	3.26(0.85)	

*p<.05, **p<.01

4.4.2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1)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관계 분석결과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0>은 회귀분석 결과의 모형요약으로서 독립변수인 신용카드요인, 종속변수인 신용보증사고를 회귀식에 투입한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표 4-10>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52	.023	.023	0.98

먼저, $R = 0.152$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R^2 = 0.023$ 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R제곱은 설명력 혹은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얼마만큼 설명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신용카드요인이 신용보증사고를 2.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는 회귀분석 결과의 분산분석이다. F값은 765.047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회귀선이 모델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표 4-11>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결과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747.307	1	747.307	765.047	.000
잔 차	31437.693	32,184	.977		
합 계	32185.000	32,185			

* 종속변수: 신용보증사고

다음 <표 4-12>은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는 0.152, 기울기 표준오차는 0.008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t값은 27.659으로서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0으로서 $p < 0.05$ 이므로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즉, 신용카드요인은 신용보증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요인이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보증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카드요인은 신용보증사고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4-12>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43	.008		-18.914	.000
	신용카드요인	8.76	.000	.152	27.659	.000

* 종속변수: 신용보증사고

2)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관계 분석결과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3>는 회귀분석 결과의 모형요약으로서 독립변수인 연체요인, 종속변수인 신용보증사고를 회귀식에 투입한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표 4-13>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모형 요약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33	.001	.001	.9994

먼저, $R = 0.033$ 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다소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R^2 = 0.001$ 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체요인이 신용보증사고를 0.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는 회귀분석 결과의 분산분석이다. F값은 34.465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4-14>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결과의 분산분석

모 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34.429	1	34.429	34.465	.000
	잔 차	32150.571	32184	.999		
	합 계	32185.000	32185			

* 종속변수: 신용보증사고

다음 <표 4-15>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는 -0.033, 기울기 표준오차는 0.06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t값은 -5.871로서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0으로서 $p < 0.05$ 이므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즉, 연체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체요인이 높으면 신용보증사고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4-15>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012	.006		2.075	.038
	연체요인	-.022	.004	-.033	-5.871	.000

* 종속변수: 신용보증사고

3)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관계 분석결과

다음은 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6>은 회귀분석 결과의 모형요약으로서 독립변수인 대출요인, 종속변수인 신용보증사고를 회귀식에 투입한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표 4-16>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모형 요약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67	.005	.004	.9977

먼저 $R = 0.067$ 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다소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R^2 = 0.005$ 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를 0.5%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7>은 회귀분석 결과의 분산분석이다. F값은 145.809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4-17>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결과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145.155	1	145.155	145.809	.000
	잔차	32039.8	32184	.996		
	합계	32185.0	32185			

* 종속변수: 신용보증사고

다음 <표 4-18>은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는 0.056 기울기 표준오차는 0.007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t값은 12.075으로서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0으로서 $p < 0.05$ 이므로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즉,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056	.007		-7.747	.000
	대출요인	7.39	.000	.067	12.075	.000

* 종속변수: 신용보증사고

4) 보증유형의 조절관계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상호작용항(독립변수 $\times$ 조절변수)을 만든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신용보증사고이고, 조절변수는 보증유형이다. 따라서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조절효과분석을 위해 변수 계산을 한 새로운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여기서 독립변수는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회귀분석의 조절효과 절차에 따라 3단계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1단계: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회귀분석

2단계: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및 보증유형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회귀분석

3단계: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및 보증유형,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과 보증유형 상호작용항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가) 가설 H4-1의 검증결과

가설 H4-1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 $\times$ 조절변수)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2)이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표 4-19>의 모형요약에 의하면, R제곱은 모형1에서 2.3%, 모형2 4.6%, 모형3 4.8%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3단계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33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p < 0.05$ 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증유형은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152	.023	.023	.98833	.654	342.737	1	181	.000
2	.216	.046	.046	.976509	.003	1.344	1	180	.248
3	.218	.048	.048	.975949	.009	4.627	1	179	.033

1. 예측값: (상수), 신용카드요인
2. 예측값: (상수), 신용카드요인, 보증유형
3. 예측값: (상수), 신용카드요인, 보증유형, 신용카드요인*보증유형 조절

나) 가설 H4-2의 검증결과

가설 H4-2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였다. <표 4-20>의 모형요약에 의하면, R제곱은 모형1에서 0.1%, 모형2 2.7%, 모형3 2.9%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증유형은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0>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033	.001	.001	.990489	.494	176.405	1	181	.000
2	.165	.027	.027	.986328	.000	.002	1	180	.965
3	.171	.029	.029	.98539	.007	2.653	1	179	.105

1. 예측값: (상수), 연체요인
2. 예측값: (상수), 연체요인, 보증유형
3. 예측값: (상수), 연체요인, 보증유형, 연체요인*보증유형 조절

다) 가설 H4-3의 검증결과

가설 H4-3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였다. <표 4-21>의 모형요약에 의하면, R제곱은 모형1에서 0.5%, 모형2 14.8%, 모형3

14.8%로 R제곱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증유형은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1>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067	.005	.004	.997757	.351	97.943	1	181	.000
2	.384	.148	.148	.923302	.004	1.107	1	180	.294
3	.384	.148	.147	.923313	.001	.157	1	179	.693

1. 예측값: (상수), 대출요인
2. 예측값: (상수), 대출요인, 보증유형
3. 예측값: (상수), 대출요인, 보증유형, 대출요인*보증유형 조절

5) 보증비율의 조절관계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만든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신용보증사고이고, 조절변수는 보증비율이다. 따라서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조절효과분석을 하기 위해 변수 계산을 한 새로운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여기서 독립변수는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회귀분석의 조절효과 절차에 따라 3단계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1단계: 신용보증사고와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간의 회귀분석

2단계: 신용보증사고, 보증비율과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간의 회귀분석

3단계: 신용카드 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및 보증비율,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과 보증비율 상호작용항과 신용보증사고간의 회귀분석

가) 가설 H5-1의 검증결과

가설 H5-1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X조절변수)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2)이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표 4-22>의 모형요약에 의하면, R제곱은 모형1에서 2.3%, 모형2 16.1%, 모형3 16.1%로 R제곱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증비율은 신용보증사고와 신용카드요인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152	.023	.023	.988337	.654	342.737	1	181	.000
2	.401	.161	.161	.915988	.003	1.344	1	180	.248
3	.401	.161	.161	.916002	.009	4.627	1	179	.033

1. 예측값: (상수), 신용카드요인
2. 예측값: (상수), 신용카드요인, 보증비율
3. 예측값: (상수), 신용카드요인, 보증비율, 신용카드요인*보증비율 조절

나) 가설 H5-2의 검증결과

가설 H4-2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보증사고와 연체요인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였다. <표 4-23> 모형요약에 의하면, R제곱은 모형1에서 0.1%, 모형2 14.5%, 모형3 14.5%로 R제곱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증비율은 신용보증사고와 연체요인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033	.001	.001	.999480	.494	176.405	1	181	.000
2	.381	.145	.145	.924536	.000	.002	1	180	.965
3	.381	.145	.145	.924525	.007	2.653	1	179	.105

1. 예측값: (상수), 연체요인
2. 예측값: (상수), 연체요인, 보증비율
3. 예측값: (상수), 연체요인, 보증비율, 연체요인*보증비율 조절

다) 가설 H5-3의 검증결과

가설 H4-3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였다. <표 4-24>의 모형요약에 의하면, R제곱은 모형1에서 0.5%, 모형2 14.8%, 모형3 14.8%로 R제곱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증비율은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과의 영향관계 조절작용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1	.067	.005	.004	.997757	.351	97.943	1	181	.000
2	.384	.148	.148	.923302	.004	1.107	1	180	.294
3	.384	.148	.147	.69184	.001	.157	1	179	.693

1. 예측값: (상수), 대출요인
2. 예측값: (상수), 대출요인, 보증비율
3. 예측값: (상수), 대출요인, 보증비율, 대출요인*보증비율 조절

4.5 연구가설 검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연구대상 변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의 F검증을 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변수로는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 보증유형, 보증비율, 신용보증사고 등이 검토되었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성별 비교 시 남성보다는 여성의 변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보증사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과 중부권의 변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이용자의 신용보증사고 위험이 높고 이들 지역의 저신용자들의 햇살론 이용이 더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직업별로는 전문가그룹과 서비스업종그룹의 변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그룹과 서비스업종그룹의 신용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넷째, 연령별로는 50대그룹의 변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연령대가 가계자금 등 지출의 수요는 많은 반면에 소득 등 수입이 불안정하여 신용보증사고 위험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 의한 연구모델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H1]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는 $p < 0.05$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H2]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는 $p < 0.05$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H3]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는 $p < 0.05$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H4]는 보증유형의 조절변수로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4-1]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4-2]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 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4-3] 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상기 설정한 가설 가운데 신용카드 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 영향관계는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4-1 H4-2]는 채택되었으나,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4-3]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와의 관계에서 보증유형은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보증유형에 따라서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간에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H5]는 보증비율의 조절변수로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5-1]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5-2]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H5-3]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상기 설정한 가설은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 그리고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서 모두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 그리고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 H5-1, H5-2, H5-3]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와의 관계에서 신용보증비율의 차이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증비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신용보증이용자들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와의 관계

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통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신용카드요인($\beta=0.486$)이 신용보증사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연체요인($\beta=0.381$)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고, 세 번째로는 대출요인($\beta=0.22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보증사고에 있어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각각의 신용특성들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민금융이용자들에 대한 신용평가지 신용평가요소의 가중치를 달리해야만 신용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여부를 요약하면 <표 4-25>와 같다.

<표4-25>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여부 요약

구 분	연 구 가 설	채택 여부
가설 H1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 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H2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H3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H4-1	신용카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H4-2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H4-3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 H5	신용카드요인·연체요인·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증비율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V. 결 론

5.1 연구의 요약

201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리스크로 총 31개의 리스크를 제시하고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소득불균형 문제를 꼽았으며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소득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 또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생계자금 지원, 자활지원, 채무조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서민금융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증적인 연구와 실무적인 대안제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국에서 햇살론(근로자) 대출을 받은 자 중 32,186명을 선정하였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의 여러 특성 중에서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으로 압축하여 신용보증사고와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고, 보증유형과 보증비율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별로 분석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여 문항이 묶이는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설계된 연구모형과 본 연구 데이터의 독립변수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종속변수인 신용보증사고, 그리고 조절변수인 보증유형과 보증비율 등과의 비교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의한 연구 모델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신용카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p < 0.05$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연체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p < 0.05$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세 번째로,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에서 대출요인이 신용보증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p < 0.05$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그리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신용카드요인($\beta = 0.486$)이 신용보증사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연체요인($\beta = 0.381$)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고, 그 다음이 대출요인($\beta = 0.226$)순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보증유형이 ‘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특성에서 3가지 요인 중 두 가지 요인(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과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3가지 특성 중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증비율이 ‘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특성에서 3가지 요인(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과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검정된 가설을 종합해 보면 햇살론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는 신용보증 이용자의 주요 신용특성인 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 대출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영향의 정도는 신용카드요인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연체요인, 대출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민금융증이용자의 신용특성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보증유형과 보증비율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보증유형은 신

용특성 중 2가지 요인(신용카드요인, 연체요인)에 대해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출요인의 경우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증비율은 신용특성의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2 정책적 시사점

검증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보증사고에 있어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각각의 신용특성들이 신용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개별 신용특성의 영향의 정도에 따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으로 보증기관에서는 신용보증이용자들에 대한 보증지원 여부 결정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신용평가모형 개발시 카드요인의 비중을 높이는 등 신용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비중을 달리함으로써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신용보증의 유형(종류)이 신용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신용보증 상품의 개발이나 보완에 있어서 신용보증이용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보증상품 개발이나 보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신용보증이용자들의 신용특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신용보증의 부실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와의 관계에서 신용보증비율의 차이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증비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와의 관계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비율의 변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행태변화와 같은 문제는 또다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햇살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신용특성과 신용보증사고와의 관계를 조명해 본 것이다. 물론 데이터의 타당성과 유의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 하에서의 연구결과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서민금융이용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연구결과로 모든 금융이용자 계층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 다양한 금융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연구대상 금융회사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용자들의 거래 금융회사가 6개 서민금융업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중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좌겸, 「연체채권 최적화를 위한 모형 분석」,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지민, 「가계부채의 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노지현, 「신용카드 사용자의 카드 사용 행태와 연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민경록·고혁진·이재현·위경우,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의 연체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4호, p1968~1972, 2007
- 신인석·남재현, 「서민금융정책의 현황 평가와 과제」, 금융정보연구, 제1권 제2호, p79, 2012
- 이건범 외,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연구」, 2014
- 이건호·정찬우, 「금융소의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이명식, 「금융마케팅에서 신용특성을 이용한 신용위험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27권 제3호, p640~p643, p647, 1998
- 이장희·정호영, 「가계신용대출평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산업교육연구, 제12권, p213, 2005
- 이장희·정호영, 「가계대출 신용평가지시스템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연구, 제10권 제1호, p61, 2005
- 송연호 외, 「우리나라 가계신용시장의 붐-버스트 사이클」, 금융정보연구, 제2권 제1호, p68~73, 2013
- 조 만,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 및 정책 과제」, 금융소비자학회, p11, 2013
- 정정일, 「전자신용보증에 의한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황혜선·조연행, 「소비자의 신용카드 대출서비스 이용유형과 이용의도」, 소비
자정책교육연구, 제9권 제4호, p142~145, 2013
강만수, 「햇살론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3
권성일, 「최신 기업신용분석」, 한국금융연수원, 201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0년사」 p.61~64, 2006
나이스(NICE)신용정보, 「신용정보체계 공시」, 2014

2. 국외문헌

Avery, Robert, Kenneth Brevoort, and Gleen Canner, (2009), 「Credit
Scoring and its effects on the Availability of Credit」,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43, No.3.
Capon, Noel, (1982), 「Credit Scoring System;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6,(Spring), p82-91.
Cox., Jappelli, T., (1993). 「The Effect of Borrowing Constraints on
Consumer Liabilitie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5(2).
Duca, J. Rosenthal, S., (2003). 「Borrowing Constraints, Household
Debts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Loan Markets」,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Research Paper, 9312
Leyshon. A. & Thrift, N., (1995). 「Geographies of Financial
Exclusion: Financial Abandonment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20(3)
Thomas, (2000), 「A survey of credit and behavioural scoring:
forecasting financial risk of lending to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16
Roberts, J. A. and Jones, E., (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2), 213–240

Castronova, E. and P. Hagstrom, (2004). “The demand for Credit Cards :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Economic Inquiry* 42(2), 305–318

Dunn, L. F. and T. H. Kim, (200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redit Card Default,” Ohio State of University.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June 2014, p6)

WEF. 「Global Risks 2014.」 Ninth Edition, January 2014, p9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redit Characteristics of Microfinance User on the Credit Guarantee – Focused on Sunshineload User

Kim, Ho-byung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e credit guarante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reas of study to emerge in microfinance in the past several years. The credit guarantee, in broad terms, a financial method that allow a community of users to obtain a coherent means of access to an organized, financially related reposito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t characteristics of microfinance user and credit guarantee. The core of this research has involved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rehensive model for credit guarantee user success,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 three factors; 1) credit card-related factor, 2) loan-related factor, and 3) delinquency-related factor. The basic research questions are explored: 1) Is the credit characteristics of microfinance user measured by the credit card, loan, and delinquency related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to overall user success in the credit guarantee? 2)

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credit characteristics and credit guarantee

3) Does some combination of credit card, loan, and delinquency related dimensions better predict overall success with the credit guarantee performance than either dimension separately?

The current research utilized as its target population microfinance users who are current users of a credit guarantee in small and medium-sized users in Korea. The research validated the credit card-related factors and loan-related factor and delinquency-related factors studying the three dimensions within the context of the microfinance population.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redit guarantee and credit characteristics, with three dimensions retained as components of a comprehensive model. It was determined that these three dimensions—credit card-related factor, loan-related factor, and delinquency-related factor are significant predictor. Thus in order to improve credit guarante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credit card-related, loan-related, and delinquency-related factors for the success of microfinance user credit guarantee.

[Key words] Credit Guarantee, Microfinance